

올바른 진로 · 진학의 방향 인도한다

내일 삼례지역 초·중·고교 연합 학부모교육 실시

삼례지역 초·중·고교 학부모와 교사들이 함께 모이는 지리가 마련된다. 26일 삼례지역 초·중·고교장단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19 상반기 연합 학부모교육'을 28일 삼례향토에술문화회관에서 진행한다. 이날 강사로는 카툰경영연구소 최윤규 소장이 초청됐다. 최 소장은 '미래변화와 진로탐색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소통할 것인지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이번 연합 학부모교육은 협의회가 학생들에게 올바른 진로와 진학의 방향을 제시하고, 학부모들이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접근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함이다. 특히 학부모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위학교별로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학교급을 초월해 지역의 모든 학교가 공동 참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교육은 이해선 삼례중 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식전행사로 삼례중앙초 교사들의 세시봉 노래와 삼례초 학생들의 공연이 준비돼 있다. 또 삼례중앙초 임기대 교장이 연합 학부모교육에 대한 의미와 취지를 설명하고, 지역학교 보내기를 위한 삼례

공고·한별고의 미니 입시설명회도 열린다. 학교 관계자는 "지역특성에 따른 교육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연합 학부모교육을 지난해부터 기획하게 됐다"면서, "이같은 노력이 지역사회의 교육현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학교는 삼례초, 삼례동초, 삼례중앙초, 삼례중, 삼례여중, 삼례공고, 한별고 등 7개교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초기창업패키지 선정자 협약 설명회 가져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지난 24일 2019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화지원 선정자 16명을 대상으로 대학본관 창업지원단 세미나실에서 협약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초기창업패키지 사업화지원 선정자는 지난 5월 2차에 걸친 선발평가 과정을 거쳐 16명의 창업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창업자에게 평균 65백만원의 사업화 사업비와 창업교육·멘토링, 관로지원 등의 토털 창업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전주대학교는 지역 창업기업을 약 90% 선발해 지역 창업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리 지역의 16명의 예비 슈퍼스타 스타트업 대표들은 청렴·윤리 실천 서약을 통해 청렴하고 성실한 기업운영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성장에 기여할 것을 선언했다. 협약 설명회에서는 청렴·윤리 실천 서약식과 본 사업화 사업 시스템 및 전자협약 설명, 대학 창업지원사업 안내, 참여자간 네트워킹 시간도 같이 마련됐다. '플렉시블 탄소면상 발열체를 이용한 폼비행 탄소 발열블라이드' 아이템으로 선정된 (주)나를 최성택 대표이사는 "대학의 다년간 창업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늘 설명회에 참석한 모든 초기창업자들이 지속가능한 창업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정아 창업지원단장은 "창업기업의 미래가치 성장을 최대화 하는 효율적 창업지원 구축에 노력을 하며, 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창업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기창업패키지 사업화 사업협약기간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7개월이며, 전주대학교는 지역창업, 대학창업, 창업기업의 판로 개척, 투자 등 토털 솔루션 창업지원 시스템을 통해 가치성장형 스타트업 을 육성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우호적인 학교 문화 조성 두 팔 걷어

도교육청, 학생인권 아카데미 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인권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한 학생인권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유·초·중·고교(원)장, 교(원)감, 교원 및 교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1월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는 다양한 인권 교육을 통해 교직원의 인권감수성을 키우고 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 28일 첫 강연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모두 9회 운영한다. 27일은 박진욱(나눔과 나눔 상임이

사)이 '죽음과 인권'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고, 9월 26일은 문경란(인권정책연구소 이사장)의 '스포츠와 인권', 10월 31일은 조효제(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의 '환경과 인권' 특강이 1월 2회에 걸쳐 이어진다. 11월 22일은 뮤즈그레인의 인권콘서트가 열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권감수성은 민주시민이 갖춰야 할 기본 소양으로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권감수성을 키우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인권 감수성 함양을 통해 인권 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이노폴리스캠퍼스 창업자 모집

전주대학교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단장 최은복)은 (예비)창업자 및 연구소기업 참여자를 오는 7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비)창업자로 선정된 30개 팀에게는 단계별 창업교육 및 아이템 검증, IR발표를 통해 최대 1,500만원의 수혜를 받게 된다. 한편, 연구소기업이란 공공기관에 특허기술을 이전받아 연구소 기업을

설립하는 기업을 말한다. 선정자에게는 기술매칭, 기술이전,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컨설팅 비용으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전북지역 (예비)창업자 또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창업자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063-220-2848, http://startup.ju.ac.kr),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식품경영커플링사업단(이하)이 지난 24일부터 1박 2일간 전공 팀프로젝트 PT 경진대회와 취업 및 인성 캠프를 실시했다.

전문 멘토 통한 취·창업 코칭으로 만족도 UP

전주대 식품경영커플링사업단 취업캠프 실시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 식품경영커플링사업단은 지난 24일부터 1박2일간 전공 팀프로젝트 PT 경진대회와 취업 및 인성 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서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준비한 전공 팀 프로젝트 결과와 현장 취업체험 보고서를 발표하고, 취업·인성지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멘토단은 강의와 코칭을 통해

30여명의 학생들을 밀착 지도했다. 김봉준 대표(태니지먼트)의 '나를 해석하다' 강의로 시작된 교육은 늦은 시간까지 그룹코칭과 개인 코칭을 거쳐 학생들의 적성과 희망 진로에 대한 매칭을 완료했다. 다음날 윤성태 CFO(이랜드파크), 박지수 대표(브리지 엔컴퍼니), 이재근 대표(리앤컴퍼니) 등의 강의와 코칭을 통해 각자의 비전을 디자인하

고 탁월한 인재가 되기 위한 자기개발 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참석한 이다연 학생(회계세무 4)은 "그간 일방향적인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개별적으로 면담하고 진로와 적성을 매칭 시키는 실제적인 취업교육이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좀 더 확실하게 자신의 진로와 자기개발에 관한 방향성을 얻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식품경영커플링사업단장 김효진 교수는 "기말고사를 마치고 여름방

학 시작과 함께 실시된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방학생활과 학업 및 취업계획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경영커플링사업단은 전주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인문사회에체능 커플링사업단 중에서 가장 오래 유지돼온 사업단이며,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지난 2018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수학 창의캠프 운영... 내달 1일부터 신청·접수

전북도교육청은 2019 전북 수학 창의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 5~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북 수학 창의캠프가 오는 8월 8일과 9일 이틀 간 전주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에서 개최된다. 전북 수학 창의캠프는 초·중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학을 통해 배운 이론을 연구·탐구·실험·실습·제작 활동에 적용하는 체험의 장으로, 이론과 실제를 융합하고 실생활에 직

접해 수학적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초등학생 120명, 중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7월 1~3일까지 지도교사를 통해 전라북도과학교육원

홈페이지(http://jse.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수학올림픽, 문제적 학생 활동, 방탈출 게임, 모둠별 문제해결 활동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